

“네?네에~?”

“누구 자식 고생…….”

우리들의 보람 1학년들의 첫 날은 이렇게 화비가 엇갈리면서 시작이 되었다.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동안 학교 안팎이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, 어려움으로 많은 실망도 안겨 준 그들이었으나 우리 교사들의 마음엔 그럴수록 굳은 각오가 더욱 새로워지기만 했다.

얼마 후 그들은 학원 산하 모든 분들의 축복과 보살핌 속에 입학식을 갖고 소중히 405개의 목화씨를 이곳 만수동 209번지에 심었던 것이다.

봄이 왔다. 아지랑이를 동반 하고서.

서먹서먹했던 사이들이 하나둘 친하게 여겨지고 잘 모르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익혀져갈 무렵 어느새 낯설었던 교정의 구석구석이 벌써 눈에 익어 정이 들어가는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정열적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에도 익숙해지고 공부 방법도 저마다 터득하여 하나 둘 두각을 나타내면서 모두들 공부에 열을 올리는 사이 개교 첫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었다.

다음 해, 첫 해의 두 배나 되는 신입생을 맞이했다. 그러나 그들의 울음은 반으로 줄었고 전화벨도 적게 울렸다. 후배들은 선배들만큼이나 욕심이 많고 똑똑하며 당돌했다. 그들은 선배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받고 앞질러 가려 부단히도 애를 썼다.

그러는 동안에 한 해가 또 가고 개교 3년째를 맞이했다. 드디어 3학년이 생긴 것이다. 후배들을 뽑지 말고 3년을 자기들하고만 지내자며 웅석을 부리던 그들이 최고 학년이 된 것이다.

그 이후에도 신입생들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우는 아이는커녕 전에 그랬던 그 날임에도 그런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. 그만큼 우리는 열심히 가르쳤고 또 그들은 우리를 잘 따라 주었다.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.

다음 해 우리는 개교 후 첫 졸업식을 거행하였다. 눈물을 머금고 입학한 그들의 축복받은 졸업식 말이다.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훌쩍 떠나 보냈다. 눈물은 더 이상 없을 것을 생각하면서.

만수동 209번지 문일여고 3년의 소중한 추억들은 지금도 내 기억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.

애들아, 보고싶다!

◁ 54

55 ▶